



고양하천네트워크

[2020 고양시 하천 친구들]

조류편 2





딱새

- 참새목 휘파람새과의 철새
- 봄과 가을에 흔히 우는 소리가 많이 들리며, 하천, 저수지, 하구의 갈대, 달뿌리풀, 줄 등의 수변 식물에서 서식한다.
- 파리, 나비, 메뚜기, 벌, 잠자리, 개구리 등을 잡아 먹는다.
- 둥지는 갈대 줄기에 여러 가지 풀을 이용해서 밥그릇 모양으로 튼다.



민물가마우지

- 바닷새의 가마우지과에 속하는 조류
- 해안, 바위섬 또는 하구 주변에서 생활하며 때로는 하천이나 호수에서도 눈에 띈다.
- 먹이는 물고기가 주식이며 잠수를 잘해서 헤엄쳐 다니다가 물 속에서 먹이를 잡는다.
- 둥지는 암초나 죽은 나뭇가지를 이용하여 접시 모양으로 만든다.



백백도요

- 도요목 도요과의 조류
- 한국에서는 흔하지 않은 나그네 새이자 겨울새이다.
- 나뭇가지 위에 있는 다른 조류의 둥지나 쓰러진 나무, 작은 나뭇가지가 쌓여 있는 곳, 때로는 땅 위에 둥지를 만든다.
- 먹이를 찾아 이동하면서 꼬리를 위 아래로 까딱까딱 움직이며 주로 곤충류나 연체동물, 갑각류 등을 먹는다.



쇠물닭

- 두루미목 뜰부기과의 조류
- 땅 위에서는 꼬지를 많이 흔들면서 걷고 물에서는 머리를 흔들면서 헤엄을 친다.
- 대부분 습지의 풀 숲에서 잘 나오지 않고 숲 사이를 조용히 이동하며 먹이(식물의 씨앗, 열매, 곤충 연체동물 등)를 먹는다.
- 경계심이 강하며 사람이 접근하면 건너 헤엄쳐서 이동하고 잘 날지 않는다.
- 둥지는 마른 풀잎과 푸른 잎을 쌓아올려 만든다.



쇠백로

- 황새목 왜가리과의 조류
- 한국에서는 흔하지 않은 여름새
- 몸집이 작고 발가락이 노란색이어서 다른 왜가리와는 쉽게 구별된다.
- 물고기, 개구리, 뱀, 새우, 가재 및 수생곤충 등을 잡아먹는다.



쇠오리

- 기러기목 오리과의 조류
- 물이 썩 곳이나 하천, 호수, 늪, 하구, 바다에 살면서 낮에는 호수, 간척지 등 안전한 곳에서 무리를 지어 쉬고, 밤이 되면 논밭이나 습지, 갈대밭, 냇가 등지에서 먹이를 찾는다.
- 여뀌 등 열매와 새로 돌아난 잎, 작은 연체동물, 물에 사는 무척추동물 등을 먹는다.

모니터링 참여

고양자연생태연구회
더불어에코밴드
어린이식물연구회
에코코리아
하천생태동아리

2020년 고양하천네트워크 단체에서 모니터링한 자료입니다.



고양하천네트워크